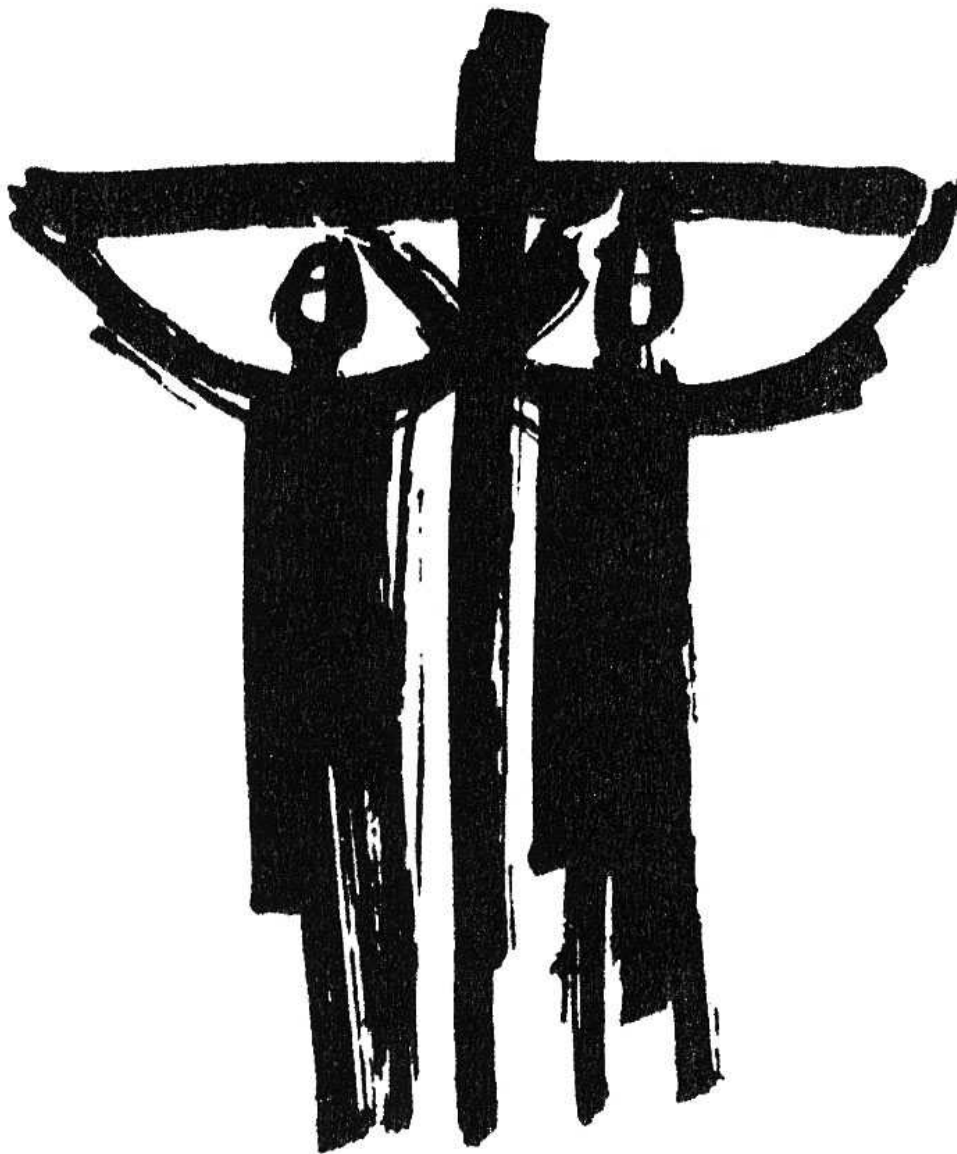


만남

2015 3월
통권 122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의인들의 운명(지혜 3, 1-8) —————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92~94 -----	7
가정 교회	자녀의 기도 2 -----	12
찬 양	오 주여 -----	13
공동체 소식	-----	14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과학자들

과학적 연구를 하는 이들이 인간의 온전한 행복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여성의 공헌

교회 생활에 이바지하는 여성들의 고유한 공헌이 언제나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3월 칼럼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르 8,27-33)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예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마태1,1), 다윗의 후손(마태1,1),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마태1,23), 유다인의 왕(마태2,2), 권위있게 가르치는 분(마태7,28),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 분(마태8,27),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마태9,3),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시는 분(마태10,34),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는 사람(마태11,19), 안식일의 주인(마태12,8), 마귀 두목 베엘제불과 협잡하는 사람(마태12,24)... 등등.

예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수타니파타)같은 자유인이다.

예수는 모든 규격과 틀을 배척하는 파격적인 인물이다.

예수는 오직 敬天愛人(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을 사랑하는)이라는 원칙으로 행동할 뿐이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서면 당황하게 된다. 예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마련이다.

예수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결단을 요구한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 각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스승이요 주님이라 고백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이 삶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르8,33)라고 한탄하시며 책망 받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시 사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 의인들의 운명(지혜 3, 1-8)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 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당신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지혜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겪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선택의 순간에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적이 있는지 나누어 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얻게 된 것이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착하게 살면 손해 보고, 착하게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살다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축복과 행복을 더 누리는 것 같고 평생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조차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히 법도 어기고 부정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에 지혜서의 저자는 일침을 가합니다.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하느님 곁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심판 날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의 생명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의 못된 행실로써 이미 영원한 삶을 포기한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불의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 비록 지금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날 우리들의 삶을 심판해주실 날이 올 것 이란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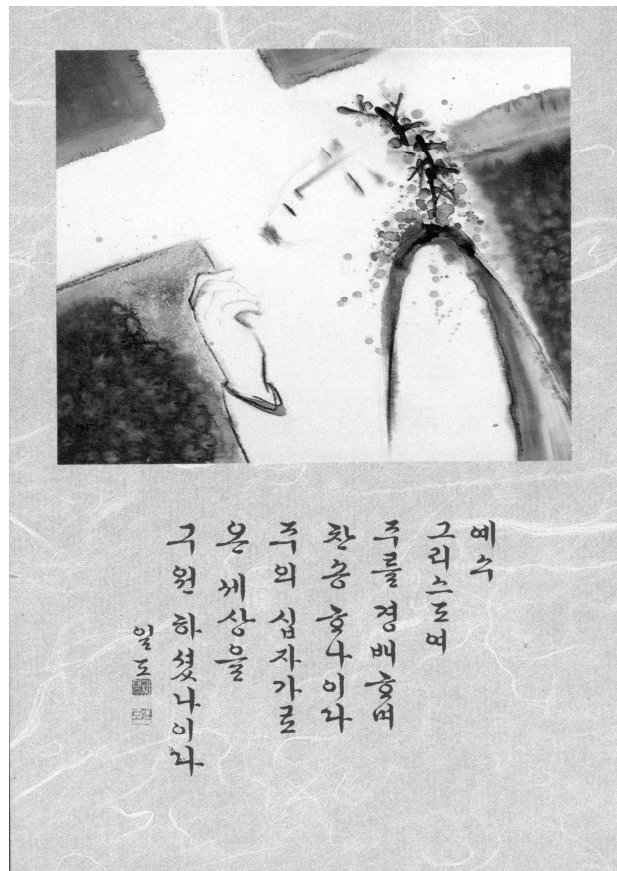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교리92

성경 길잡이 (61)

서간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1)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바오로가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57년경에 코린토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로마에 있는 큰 규모의 유대인 집단을 중심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바오로의 친구들과 협력자인 아퀼라와 프리스킬라는 로마에 살았다가 클라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했을 때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사도 18,2) 그들과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54년에 클라디우스가 죽은 후 다시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분명히 다른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그토록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 구원의 보편성 등 흔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물론 이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었습니다.

바오로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하고 나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죄인은 모두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서 보여주신 그 크나큰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품음을 이야기합니다.(3,21-5,21)

또한 바오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구실로 삼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계약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바탕으로 두고, 이 자유로움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인식하고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죽음까지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6-8장)

그 다음에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과

투쟁을 벌입니다. 그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을지라도 하느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용하여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각 사람의 합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순수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설명합니다.(12,1-15,13)

성경 읽기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1-11절 : 의화와 구원에 대한 바오로의 신학

8장 28-39절 :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바오로의 탁월한 믿음의 찬가.

12장 :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랑의 의미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교리93

성경 길잡이 (62)

서간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2)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이 로마 서간의 말을 행위에 대립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물음으로 접근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은 바오로의 의화(義化)에 대한 견해를 구원에 대한 견해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함으로서(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받기를(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희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5,1-11 참조)

바오로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옛 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법은 행위, 특히 ‘사랑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10장 9절에서 바오로는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또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믿고’,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단지 말하기만 하고 삶을 통해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믿습니다. 이것이 바오로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는 이유입니다. (12, 1-15, 13)

그래서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필리 2, 12)

바오로의 신학에서는 믿음과 행위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요한 양면입니다. 우리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 삶에서 그리스도가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당면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물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들려줍니다. 이 서간은 우리에게 희망의 힘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리94

성경 길잡이 (63)

서간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코린토라는 도시는 로마령 아카이아(현재 남부 그리스)의 수도로서, 사상과 무역과 돈과 부도덕한 행위와 더불어 로마에서 동양을 오가는 여행자로 부산한 번창하는 항구였습니다. 바오로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코린토에 가서 일 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했으나 바오로가 코린토를 떠난 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코린토에서 횡행하던 비도덕적 관습에 빠져들고, 또 어떤 이들은 시민 법정에서 법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전례의식은 난장판이 되어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사랑보다 우선시 되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성과 혼인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서간은 일상적인 인사말과 감사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즉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일어난 분열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오로 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폴로 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케파(베드로)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삼으며 (3,11)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1,10-4,21)

그 다음에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 안에 떠돌았던 도덕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에 대해 파문을 명령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한 코린토 신자들에게 부도덕한 습관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혼인과 이혼, 미혼 생활과 과부 생활을 설명하고,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7-8장) 바오로를 싫어한 어떤 신자들은 그의 사도 자격을 공격을 합니다.

바오로는 자신과 자신의 선교 직무를 스스로 변호하고 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서로서로 성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그들이 성찬례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10, 16-17)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코린토 신자들도, 또한 우리도 바오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분열 문제가 그들의 전례 모임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바오로는 악습을 고칠 것을 권고하며 그리스도가 성체성사를 세우신 사실에 대해 기술합니다. (11, 2-34)

병을 고치는 은사,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코린토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논쟁의 근거 내지는 영적 엘리트 의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으뜸 은사로서 다른 모든 은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2-14장)

성경 읽기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10-25절 : 코린토 교회의 분열에 대한 통찰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11장 23-26절 : 성체성사 설정에 대한 바오로의 설명

12장 12절 - 13장 13절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바오로의 설명과 사랑의 의미에 대한 아름다운 담화.

15장 1절-28절 :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의 실체에 대한 바오로의 증언

비안네 신부

자녀의 기도 II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성껏 길러 주신 부모님을 항상 축복해 주소서.
 또한 우리가 (제가) 알게 모르게
 하느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집회 3,3-4)



188

오 주여

조광형 글 / 김용석 곡

C G Am Dm G

너무나 크신 사 랑 을 나 - 헤 아 릴 수 - 없 어 요
아 버 지 뜻 이 었 기 에 온 전 히 받 아 들 이 신 주 님

C G Am Dm G 1.C 2.C

사 랑 의 길 이 라 고 하 기 엔 - 감 당 하 기 어 려웠 었 던 일 요 누 굴
당 신 땀 에 흐 르 는 눈 물 을 - 이 져 닦 아 - 드 리 겠 어

G C G C

위 해 무 거 운 짐 을 쓰 러 져 도 다 시 일 어 나 심 을 우 리

F Em Dm D G

들 을 사 랑 하 심 에 그 모 두 를 사 랑 하 심 에 십 자

C E Am Dm G

가 고통 마 저 도 아 버 지 뜻 대로 받 아 들 이 신 - 예 -

C E Am Dm G

수 오 예 - 수 - 여 당 신 을 사 랑 - 합 니 다 예 -

C E Am Dm G C

수 오 예 수 - 여 당 신 을 사 랑 - 합 니 다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 안 나	김 주 영	19일	요 셉 (St. Joseph)	손 대 조 이 현 목 곽 케 빈
3일	가 밀 라 (St. Camilla)	허(이)명자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미량(H)	19일	요 셉 (St. Joseph)	문지서(H) 이재홍(O)
13일	살 림	현우(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3월 19일	⌄박기옥(요세파)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2일	⌄박춘식(니콜라오)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1일	브레맨 공동체	강순행(말가리타) 이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3구역
8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정명옥(살로메) 문경영(아가다)	최장용(레오) 이현목(요셉)	4구역
15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선주(로사)	김잔디(아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부
22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
29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1구역

❖ 3월 성가번호

3월	입 당	봉 헌	마 침
1일	72	220	123
8일	119	211	115
15일	122	217	118
22일	117	215	116
29일	75	216	125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2월 1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2일
계(€)	272.10	238.35	362.10	236.86

❖ 자진헌납금 ❖

2015년 2월 1일 - 2월 22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김형웅, 권지연, 이경구, 박귀동, 배성우, 박경원, 현영애, 진윤희, 손수희, 우동천,
이공종, 육종인, 이종화, 이기열, 이수웅, 민경화, 손대조, 임정희, 이정은, 박재형,
이현묵, 이정수, 정정숙,

구좌입금 : 이성원(2), 김대현, 허두욱, 김치수, 서유미, 최현봉, 곽케빈, 허길조, 최종금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2월 28일(토) 13:30부터 3월 1일(주일) 17:00까지 사순피정을 강당에서 합니다. 주제는 ‘성서와 함께 하는 “파스카의 공동체 교회”’이며 김정우(라파엘) 신부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 3월 13일(금)-15일(주일)은 유럽사목자회의 교환사목 주간입니다. 저희 본당에는 에센 본당 김대하(요한)신부님께서 방문하시고, 주임 신부님께서 암스테르담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3. 3월 8일(주일)은 공동체 십자가 길 기도가 미사 전에 있습니다. 14:00부터 기도가 봉헌되어 집니다.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정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번 달 예비자 교리는 22일(주일)입니다.
5. 3월 27일(금)-29(성지주일)은 주임 신부님께서 오슬로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그 때에는 본당에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각 독일 본당에서 아름다운 성지주일 보내시길 권고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미사 후 전례교리가 있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정기 미사는 2월 14일, 연중 제 6주일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미사 후 신부님과 세배의례가 있었습니다.
2. 유복희 마리아 자매님께서 오빠상 - 고인(故人) 유영춘(정하상 바오로)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슬픈 마음을 함께 합니다.
3. 2월 소공동체 기도모임은 본당 피정으로 갈음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3월 ❖

일	요일	축 일	단체 행사	비 고
1	일	사순 제2주일 삼일절	본당 사순피정 - 1일(주일)	강당
2	월			
3	화			
4	수			
5	목		꾸리아	
6	금	경칩	1구역 소공동체	
7	토			브레멘 공동체 미사
8	일	사순 제3주일	사목협의회	
9	월			
10	화			
11	수			
12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교환사목 - 15일까지	
13	금		김대하 요한 신부님(에센) 2구역 소공동체	주임 신부님 : 암스테르담 사목
14	토	순교자 윤봉문 요셉 치명일 (1888년)		오스나브뤽 공동체 미사
15	일	사순 제4주일	청년부 소공동체	
16	월			
17	화			
18	수			
19	목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20	금		3구역 소공동체	
21	토	춘분		하노버 공동체 미사
22	일	사순 제5주일		
23	월			
24	화		아치에스 19:00	꾸리아 주관
25	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26	목		연령회	
27	금		4구역 소공동체	오슬로 공동체 방문
28	토			
29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없음.
30	월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고찬연(아우구스티노), Tel : 0420 952194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